

군산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지속가능한 공동발전 목표

강임준 군산시장 "관광 등 상생발전 이끌어 나갈 것"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는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성주 국립연공공단 이사장, 김두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을 비롯한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협력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최근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

고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은 군산지역 생산품 및 특산물 판매 촉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지역인재 취업 지원 워크숍·연찬회 등 각종 행사 군산 개최, 문화·관광과 연계한 상호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12개 공공기관 각종 회의 및 행사 장소 제공 지원, 지역 특산물 할인 판매, 숙박·음식·관광 할인 혜택 제공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기로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는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했다.

또 시와 이전 공공기관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상호협력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오는 10월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으로 군산투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상권과 군산 관광·경제 활성화 등 상생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업무협약에 함께 해주시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께 감사하며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농식품부 7개 공모사업 선정 145억 확보

2023년까지 5개년동안 해당 지구에 각 40억원 투입

익산시가 올해 공모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 7개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국비 공모 총 사업비 14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익산시는 이에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합하면 용포면, 왕궁면 기초생활취약사업은 내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동안 해당 지구에 각 40억 원(국비·지방비 포함 120억 원)이 투입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복지센터 등을 건립하고 면 소재지 일원의 가로경관 등을 개선하여 면소재지와 배후 마을에 대한 일상적 서

비스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취약사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1단계(40억 원) 사업이 원활히 완료되면 배후 마을과의 연계사업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상향식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역량에 따라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마을사업은 3개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성당면 두동 편백마을은 10억 원을 투입해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마을의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또한 마을에 방치돼 있는 우물과 인근 외두지 수변 등을 정비해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워크숍 개최

군산시는 지난달 30일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PM단, 지자체 관광 담당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방향 공유와 논의를 통해 지자체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시대를 공유해 향후 사업개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관광수요자 관점에서 관광요소별 부족분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관광명소 주변 환경디자인 개선,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화, 관광콘텐츠 확충 등 각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지역 개별사업은 자양에 권역 공동추진 및 통합 관점에서 진행한다는



잡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시의 대표관광지들 대상으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선유도 홍보관 조성사업, 권역 관광안내소 환경개선사업, 야구의 거리 조성사업, 대표관광지 워터 조성사업 등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시설 정비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테마가 있는 고품격 관광코스와 맞춤형 관광 코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미륵산 권역사업 개관식

41억원 투자 다목적센터 등 사업 추진

익산시가 추진한 미륵산 권역사업 개관식이 지난달 30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고 31일 밝혔다.

미륵산 권역사업은 삼기면 연동리(연동, 석불, 채산, 죽정)와 기산리(현동)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41억 원을 투자해 다목적센터(세미나실, 쥘쥘방 카페, 동아리방, 사무실 등), 주차장 및 체합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모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익산시의 명산인 미륵산 기슭에 자리 잡은 미륵산 권역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추사와 내대지를 정비해 주변 경관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관식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목적센터와 맛 체험장이 마을 주변경과 잘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고 있다면서 축경 마을의 변모된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동안 축경 마을에는 주차장이 없어 다른 등산로에 비해 등산객이 적었지만 다목적센터에 주차장과 카페 그리고 맛 체험장이

같이 있어 체험객은 물론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륵산 권역에서는 카페와 맛 체험장·쥘쥘방 등의 운영과 함께 농산물 체험, 농기계체험, 요리체험, 인성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실시하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을 활용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어느 지역보다 활발한 농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몰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지역정착권과 추진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간 갈등과 행정과의 마찰 등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한 위원장님들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미륵산 권역사업 추진에 앞장선 박봉열 추진위원장은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농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경찰서, 농경지 침수피해 현장점검 나서

익산 전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가운데 익산경찰서 서장과 과장 등 10명은 지난달 31일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침수피해가 큰 황등면 동현리 신기리 일대 벼농사 농경지 침수피해 현장 및 탑천 등 하천 범람우려지역 등을 점검하고 피해원인과 복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틀간 내린 비로 황등면, 망성면 등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농경지 15ha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상주 서장은 "국지성 호우로 북부 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집중되어 익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급경사지, 저지대 등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 관내 복지시설에 지역사랑상품권 적극 홍보

군산시 복지지원과(과장 김주홍)는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맹점 확보 및 상품권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에 따르면 관내 복지시설 생산품 판매업체를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하며 복지시설 생산품 구매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생산품 구입이 가능한 복지시설은 군산지역 1개 사업단 한마음자활센터 1개 사업단 시청로비 1층에 있는 드림카페, 시니어클럽 등 총 8곳으로 복지시설에서 가입 가능한 모든 가맹점을 확보했다.

또한 담당부서 직원들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물론 노인시설, 장애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 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군산사랑상품권을 구매, 사용에 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복지시설 생산품을 구매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중국 베이하이시 도서관 양국 문화교류 협약

군산시립도서관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양일간 중국 베이하이 시립도서관 대표단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 도서관간 문화교류와 향후 MOU 체결에 대해 논의했다.

천연치 베이하이시 부국장과 리다오하이 베이하이시립도서관 관장 등을 포함한 대표단은 8월 31일 면담을 통해 베이하이시 지방문헌을 기증하고 양국 도서관간 MOU 체결 및 업무 방식 공유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1일에는 군산시립도서관의 독서문화행

행사에 참여해 베이하이시 문화체험을 진행한 후 군산시 관내 도서관 부서에 함께 했다.

문화체험전은 베이하이시를 알리는 사진전과 중국고전 낭독회로 진행됐으며, 중국 고전시를 낭독하는 낭독회에서는 시립도서관 사립송희 회원들의 합창 낭송이 이어져 시종일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편 중국 광시성 최남단에 위치한 베이하이시는 2008년 군산시와 우호도시를 체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